



농협 무주군지부, 수확기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무주군지부(지부장 오영석),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7일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면에 위치한 사과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 참여한 전북농협, 무주군지부, 무주농협 직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농작업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과 농가를 위해 사과 일 따기 및 반사 필름갈기 등을 함께하여 구슬땀을 흘렸다.

오영석 지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 일손돕기를 통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100년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상전면, 유관기관 고추 수확 일손돕기 나서

진안군 상전면은 7일 고추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고추 수확 마바지 일손돕기를 신속히 추진했다.

이날 상전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직원 8명은 고추 수확 마바지에 참여했지만 고령 등 일손 부족으로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가 고추 수확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고추 수확은 고추를 파종한 후에 수확하는 행위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만큼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업무를 내지 못하던 농가를 위해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아침부터 고추수확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진안=우태민 기자

정읍경찰, 치안성과보고회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는 7일 정읍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각 과·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치안성과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열체크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성과보고회로 경찰의 주요 추진 정책으로 설계된 2021년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기능별 추진 성과를 분석·점검, 남은 평가 기간 미비한 점을 보완해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읍경찰서는 주기적인 확대회의 개최를 통해 성과 향상 및 치안민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민장학재단에 500만원 전달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최종필 회장, 지역인재 양성 위해

전북서남상공회 의소 최종필 회장이 7일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유진섭)에 500만원을 전달했다.

기탁된 장학금은 정읍시민장학재단을 통해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혁신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워될 것이다.

최종필 회장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자 장학금 기탁을 결정했다"며 "지역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취임 당시 코로나19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



큼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장 방문과 각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장보기 기방을 제작해 정읍시에 기탁하기도 했다. 특히,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3,7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최종필 회장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자 장학금 기탁을 결정했다"며 "지역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군,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식

진안군은 7일 문화의 집에서 수강생 15명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 자격 교육과정은 전통놀이 보급과 정착에 힘쓰며 전통놀이를 계승·발전시킬 리더의 양성을 위해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놀이와 역사 이야기, 전래놀이, 민속놀이(24절기 세시풍속) 등으로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총 48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수강생 15명 중 14명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증을 통해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진안=우태민 기자



남원경찰, 여성 1인 근무 관사 방범진단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자치경찰 일환으로 지난 7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읍·면 지역 여성 1인 거주 관사를 대상으로 방범진단을 실시했다.

남원서 관내에는 보건진료소 17개소와 학교 관사 16개소가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관사 및 건물 출입구·잠금장치, 방범창·CCTV, 경비업체 기업야부 등 범죄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이동민 서장은 "여성 공무원에 대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평소 자체적인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무주군 무주읍 가우리 산10번지 일원에서 무주군청,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약 30여명의 진화인력과 함께 산불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로 비



하기 위해 산불 지휘차량을 통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했다. 지휘 차량에 탑재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드론, 지상 산불영상전송카메라 등의 실시간 영상 전송시스템 등을 활용해 산불현장 통합 지휘 체계 확립에 역점을 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산불이 연중 발생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공조를 바탕으로 한 산불현장 통합지휘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산불진화장비와 전문 진화인력의 교육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 산불진화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119소방동요대회 대상·금상 수상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7일 제22회 전국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최초로 초등부(남원초·전모세 가족) 1위인 대상과 유치부(오동초, 하태준 가족)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119소방동요대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방동요대회를 통해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김종희 지휘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다며, 가족들이 함께 화음을 맞추며 노래하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

었다"고 전했다.

남원소방서 대표로 참가한 전모세 가족은 '모세의 기적' 노래에 어릴 적 구급차를 이용해 빠른 치료를 받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노래와 안무를 3달 동안 꾸준히 연습하였으며, 금상의 하태준 가족은 '어째는 희망을 나르는 소방관' 노래로, 위험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을 치ampionship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소방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불렀다.

박덕규 서장은 "이번 동요대회를 통해 가족과 추억을 쌓고 어린이가 안전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효 지도사' 자격증 수여식

진안군은 7일 오후 6시 30분 군민자치센터 강당에서 '효 지도사' 수료식 겸 자격증 수여식을 갖고 10명의 효지도사를 배출했다.

진안군은 전북노인복지문화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0시간 동안 전통 효 사상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현대적 효·미래적 가치로서의 효·법상미리교육 등 효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했으며, 10명의 교육생이 효지도사 교육을 이수하고 효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수료자들은 효 지도사로서 진안군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현장에 투입돼 활동하게 되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품성교육을 실시해 효의 근본인 공경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게 된다. /진안=우태민 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